

文 전 대통령 '이재명 중심' 발언 놓고 친명-비명 설전 가열

이상민 "만약 발언했다면, 해선 안될 문제"
 박용진 "文 당내 갈등 소재로 소환하면 안돼"
 김용민 "해석차...이견 표출 바람직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발언을 놓고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계 간 설전이 가열되는 모양새다. 비명계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문 전 대통령을 당내 갈등의 소재로 소환했다고 비판한 반면 친명계는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박 전 원장을 옹호했다.

20일 민주당 의원들은 라디오 방송 인터뷰를 통해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비이재명(비명)계로 분류되는 이상민 의원의 경우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서 "제가 그 자리에 없었으니 어떻게 말씀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쉽게 하진 않았겠지만 만약 했다면 (전) 대통령으로 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박지원 전 원장이 없는 얘기할 분이 아니고, 박용진 의원도 그대로 전했을 것"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쨌든 저희 당에 영향력이 있는 본인인데 그 말씀을 했다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의 사정에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가 제일 중요한 큰 현안이다. 저처럼 사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의원이나 그룹이 있다. 그런데 밖에 얘기하면 일파만파 당내에 여러가지 파장이 일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비명계 박용진 의원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당초 문 전 대통령 발언을 전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당내 갈등의 소재로 소환시켜서 이리 해석하고 저리 해석하는 것에 별로 동의할 수가 없다"고 직격했다. 대신 '악재를 수습하는 민주당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문 전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박 의원은 "어떤 말씀을 듣고 왔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전하시는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고 안 하셨을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박 전 국정원장은 지난 10일 한 라디오에서 '문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하던가'라고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

께서 현재 민주당이 총단합해서 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 지금 이재명 대표 외에 대안도 없으면서 자꾸 무슨...' 그 정도 이야기하셨다"고 답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문 전 대통령이 최근 사법리스크로 인한 사퇴론이 불거진 이 대표를 감싸려는 주장이 제기되자 박 의원이 이를 비판한 것이다. 박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7일 경남 양산 사저에서 문 대통령을 만났다고 전했다.

이에 박 의원은 "그런 문제(이재명 대표의 거취 논란)로 전직 대통령과 얘기하는 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말씀이 혹시 나왔더라도 그걸 굳이 그럴(외부에 알릴)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보았다.

친명계 김용민 의원은 이 사안이 해석의 차이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김 의원은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녁'에서 "이재명 대표가 모든 조처를 다 할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 대표직까지 내려놓는 것이냐, 각자 해석이 조금씩 다르듯이 문 전 대통령의 당내 화합 요구 메시지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 늘 비판적 목소리를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증폭시켜서 해석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



다. 당내 분란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들은 의원들, 정치인들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인들이 이런 반대 목소리나 분란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 당이 위기다라고 평가하려면 거기에 따른 지지층의 분열이 생겨야 한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확고하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 당원과 지지층이 전혀 분열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당내 근본적 위기는 아니고

표면적 외과에 있는 사람들의 이견이 표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그리고 그 이견들이 표출되는 게 바람직한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당내에서 저희가 의원들끼리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를 외부에 나가서 마치 소신파인 것처럼 얘기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큰 것처럼 증폭시켜서 이재명 대표를 흔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환기자

이숙희 광주 북구의원,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위한 의견수렴 나서

예술인·관계기관 참석 간담회 개최



광주 북구의회 이숙희 의원(두암1·2·3, 풍향, 문화, 석곡동)이 지난 15일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다방면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과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적으로 거리공연을 활성화시키는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간담회에서는 시립교향악단 외 여러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버스킹을 진행하며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집행부 연계사업 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하였다.

특히 정기적인 버스킹 장소 확보와 홍보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관련부서인 북구청 문화예술과 부서장과 팀장 역시 배석하여 관련 정책 및 제도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논의된 주요 내용으로는 ▲거리공연 운영 및 지원 방안 모색 ▲협력체계 구축 ▲거리공연사업의 위탁관리 등이다.

간담회를 주최한 이숙희 의원은 "세계 주요 관광도시를 보며 거리공연이 도시를 대표하는 중요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음을 느껴왔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정책적으로 거리공연을 활성화시켜 거리공연이 북구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구례군의의회, 여순10·19사건 피해 유족 만나



구례군의의회(의장 유시문)는 지난 17일 간문 초등학교 등 2곳에서 여순10·19사건 희생자 유가족 등 마을주민들을 만나 당시 피해상황을 들었다고 밝혔다.

여순사건특별법은 지난 2021년 6월 29일에 통과되었지만 간전면 등 구례군 일대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한 조사는 지금까지도 충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의원들은 여순사건 피해자 및 유가족들을 직접 찾아가 역사적 상황을 듣고 수집하여 영상으로 보존하여야 하는데 공감하고 의

원 정책연구용역모임을 결성하였으며 마을주민들과의 간담회를 마련하였다.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유복자로 태어난 사연 △아버지 시신을 찾지 못해 위태로움과 무덤을 만든 사연 △희생된 주민 10여명과 고문을 받은 아버지 시신을 어혈을 풀기 위해 인분을 약으로 사용한 아버지 △총에 맞아 죽은 형제-아버지-시아버지-오빠 등 피해자 유족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었으며 위령탑 건립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유시문 의장은 "여순사건은 많은 국민들이 여수, 순천일대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간전면을 비롯한 구례지역에서도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며 "신속한 사실조사와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 신청이 필수적이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 피해신고 접수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다.

구례=박진호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